

권오준 포스코회장 “위대한 포스코 도전에 나서다”



△2014.3.14 제8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현장제복차림으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4년 3월 14일 권오준 최고기술책임자(CTO)가 8대 포스코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회장 내정 이후 그의 첫 일성(一聲)은 “포스코를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며 “위대한 포스코를 창조하자”는 의미로 ‘포스코 더 그레이트(POSCO the great)’를 새 비전으로 내걸었다.

권 회장은 “비(非)상장 계열사들을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上場)시키고 재무적·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사업의 퇴출과 철강본업 경쟁력 강화를 천명하며 포스코의 옛 영화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각오다.

그가 재계 순위 6위인 ‘포스코호(號)’의 새 수장(首長)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철강업계에서 뜰까 가라면 서러워 할 ‘최고의 기술 엔지니어’이기 때문이다. 1986년 포스코에 입사한 그는 28년간 포항과 광양에서 머물며 ‘기술연구’의 한 우물을 팠다. 그는 “지금 포스코는 세계 최고 기술로 30년간 먹고 살 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포스코의 차기 회장후보로 선정됐다. 선인과정에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4일 있었던 승계 카운슬의 1차 회의 때부터였다. 승계 카운슬 멤버 겸 추천위원인 한준호(69) 삼천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연구소에 계셨던 분이려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면접을 해보니 철강의 근원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과 마케팅을 접목해 포스코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하더라, 철강의 경쟁력을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를 키우겠다는 복안도 있었다.”

후보 선정 작업을 총괄 지휘한 이영선(67) 포스코이사회 의장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영어로 질문을 해 봤는데 유창하게 답변한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답변도 훌륭했다. 세계 철강업의 구조조정 등에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돋보였다”고 말했다.

사내 반응도 좋은 편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권 사장은 기술자고 전문가다. 지금 포스코가 그저 그런 철강제품을 만들어 싸게 판다고 해서 많이 팔리겠냐,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임자라 생각 한다”고 했다.

■ 성장환경

그는 1950년 경북 영주시 하망동 181번지(속칭 향교골)에서 김교공과 34세손 권영건(學健)의 4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자당(慈堂, 정수생 씨)은 대구 경북여고를 졸업한 당시의 현대식 고등교육을 받은 집안의 귀수였다. 권 회장이 영주초등학교와 영주중학교 재학시절 부친은 영주에서 제

재소를 경영해 상당한 재력을 쌓았다. 원목을 사들여 각목 등으로 가공한 후 판매했던 그의 집안은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부자였다. 이후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금난에 몰려 사업이 기울었지만 당시 부친은 자식들에게만은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면서 엄격한 교육을 시켰다.

1952년에 영주읍의회 의원으로 선출됐고 1956년에는 재선에 성공해 영주읍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체육회, 장학회장 등 지역 내 봉사활동도 그의 몫이었다.

그러다가 서울사대부고를 다니 시절에는 부친 사업이 더욱 어려워져 등록금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다. 선친은 매일 새벽 다섯 남매를 깨워 영주 철단산까지 함께 달리를 했다. 신문의 광고지를 모아 연습장을 만들고 교훈을 적어 자녀들에게 나눠주며 몹소 근검절약을 가르쳤다.

특히 어머니의 교육열은 남달랐다. 평소엔 자애롭지만 자식들이 숙제를 제대로 못 할 때에는 불호령을 내리는 ‘타이거 맘(tiger mom, 자녀를 혹독하게 교육하는 엄마)’이기도 했다. “집안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만 어머니는 저녁마다 다섯 남매의 숙제지도를 했는데 그 시간이 따로 ‘공포’였다고 한다. 자식들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본인이 더 억울해 했고 어떤 날은 아궁이에 책을 집어 던진다고 하거나 공부해 하지 않으면 지게를 줄 테니 나무나 해오라는 등 ‘충격요법’을 써 자녀들을

간결하다. 성품도 온화하고 차분하지만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학창 시절 친구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번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집요할 정도로 몰입해 실행하는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공부하겠다고 정한 시간에는 제 살을 찌집으며 집중했고, 운동하겠다고 목표를 정하면 상급학교 진학 일시를 며칠 앞두고도 농구공을 들고 운동장에 나갔던 친구리라는게 지인들의 기억이다.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건설, 중화학 중심의 산업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그가 철(鐵)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학업 성적이 뛰어난 그는 자연스럽게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목표로 삼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자기관리 역시 철저하다. 일례로 2008년 12월 조선일보 부음(訃音)란에 실린 부친상 부고를 보면, 그의 직함은 그냥 ‘회사원’이다. 당시 포스코기술연구소장이었지만, 수많은 협력사가 조문(弔問)하러 오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잡음이 나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철인(鐵人)’

권오준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다니면서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마음먹

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형성한 것도 이때였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그는 1986년 포스코에 입사했다. 몇몇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을 받았지만 생산 현장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를 택했다. 평소 그는 “생산과 연구가 서로 시너지를 가지고 병행돼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박태준 명예회장의 영향도 받았다. 박 명예회장은 제철보국과 교육보국의 가치를 세우고 인재양성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광양제철소 1기 설비 건설이 한창이던 1986년 포항공대(포스텍)를, 이듬해는 산업과학기술연구소(현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를 설립해 포스코-포항공대-RIST를 3개 축으로 하는 산학연 연구개발체제를 완벽했다. 권 회장은 이 시기에 핵심 연구인력으로 포스코로 영입됐고 이듬해인 1987년 RIST가 출범하자마자 원년 연구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공학박사인 그는 신소재기술인 ‘파이버스 공법’을 상용화하는 데 기여하고 염수(鹽水·소금물)에서 배터리 필수 소재인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그가 다방면에 걸쳐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적 호기심’과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기술 지상주의자’다.

그는 각종 특허와 발명 성과로 장영실상(1996년), 대한금속학회상(1996년), 기술경



△권오준 포스코회장 직무모습

다, 아직 철강산업에서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권 회장은 최근 직접 기업 설명회를 주관하고 “2016년까지 현금창출능력(EBITDA) 8.5조원과 신용등급 A등급 회복을 통해 글로벌 톱 수준의 재무건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천소재와 청정 에너지의 2대 영역에서 메가 성장엔진을 육성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명실상부 내실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새로운 비전 ‘POSCO the Great’ 달성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전략

과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사내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토요학습 시간엔 직접 강사로 나섰다. 그를 최고경영자(CEO)가 사내 학습 강연자로 직접 나선 것은 포스코 창립 이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권 회장은 ‘철(Fe)’ 이자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철(鐵)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다. 철강을 주력으로 하는 포스코인들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임직원들의 사기와 자부심을 일깨웠다. 권 회장은 지난 5월 22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직원들과 만나 소통하는 ‘IP((Innovation POSCO) 콘서트’를 포항과 광양, 서울에서 열고 있다. 권 회장을 비롯한 7명의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해 CEO경영이념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 임직원에 대한 중요성과 배려도 잊지 않았다. 지난 5월 권 회장은 유선희(53) 포스코 상무를 비롯해 올해 임원으로 승진한 포스코 및 계열사 여성임원 7명을 초청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성 임원들 모두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달라 고 당부했다. 흔히 철강업종 특성상 포스코는 여성 임직원 비율이 적은 기업으로 꼽힌다. 2003년과 비교하면 최근 포스코 내 남자 직원은 10% 넘게 줄었으나 여직원은 156%정도 증가하는 등 여성 인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오는 6월 말 취임 100일을 앞둔 권 회장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권 회장은 남다른 도전을 즐겼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남들에게 나서서 것을 즐기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남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챙겨듣는 스타일이다. 한 철강업체의 기술담당 임원은 “권 회장은 국내 최대 철강업체·포스코의 대표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소탈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서 이런 점이 CEO자리에 오르게 한 전진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포스코를 맡을 낙후되면서도 항상 소신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지인들은 권 회장이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포스코를 초일류기업으로 키워갈 것으로 기대한다.

위대한 포스코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권오준 족친의 의지와 신념으로 기필코 ‘포스코의 제2도약의 신평’ 꽃 피울수 있도록 권문(權門)과 함께 갈망하며 거듭 성원(聲援)을 보낸다.



△오준회장 5남매(오른쪽부터 오준 회장 다음 백형 오성씨, 원주 누님, 차재 오진, 막내 오용 고문 등 -권오준 회장의 5남매가 모두 서울사대부고를 졸업한 데는 장녀인 권원주씨 영향이 컸다. 원주씨는 서울사대부고 졸업생으로 이화여대 약학대학을 나와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했다. 둘째이자 장남인 권오성씨는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건설현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2남인 권회장은 20회 졸업생이다. 삼남인 권오진씨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 중이다. 막내인 권오용씨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전경련 홍보실장, 금호아시아나그룹 홍보 전무, KTB 경영기획실장, SK그룹사장 등을 거쳐 현재 효성그룹에서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5남매를 모두 서울사대부고에 다녔다 한 권 회장의 부모는 막내인 권고문이 졸업하던 1974년 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오준 회장의 양친과 백형인 오성회장 고교졸업식 함께 찍은 사진



△취임 후 해외 사업장 근무자 격려모습

영인상(2013년) 등을 수상했다. 그렇다고 그가 한 자리에 앉아 연구에만 몰두하는 기술인에 머물지 않는다. 직접 문제를 찾고 행동으로 옮겨 사업화까지 고민한다. “산업 내 기술 융합 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기술 장벽을 넘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 경영위기 앞장 수익성 제고, 신용등급 상승 위해 매진

권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위기 극복을 위한 ‘고배 조이기’에 나섰다. 취임 일성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그가 급여난민 이라는 고(高)강도 조치를 내놓았다. 권 회장은 취임 직후 사내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소기의 성과와 수익성을 구현할 때까지 기본급의 30%를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보다는 질’ 매출액 보다는 이익을 많이 내 더 많은 회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수익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권 회장의 솔선수범을 본 임원들도 개인별로 각자 기본급의 10~25%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수요 감소와 중국발(發) 철강공급과잉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 신용등급 같은 지표가 예전보다 나빠졌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익성 개선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내부 효율성 증대에 주력해 주주와 투자자, 고객과 협력파트너, 임직원, 지역사회와 국민 등 포스코를 늘려주시는 이해관계자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 답 있다” “적자 신(新)사업 퇴출 철강명가(名家) 부활”

권 회장은 현장 중심 경영으로 위기극복에 팔을 걷었다. 취임 후 그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를 시작으로 해외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3월 14일 포항제철소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취임식을 가졌던 그는 평소 임직원들에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포항·광양제철소는 물론이고 포스코엠텍, 포스코캠텍, 포스코플랜텍 등 주요계열사 사업장을 수시로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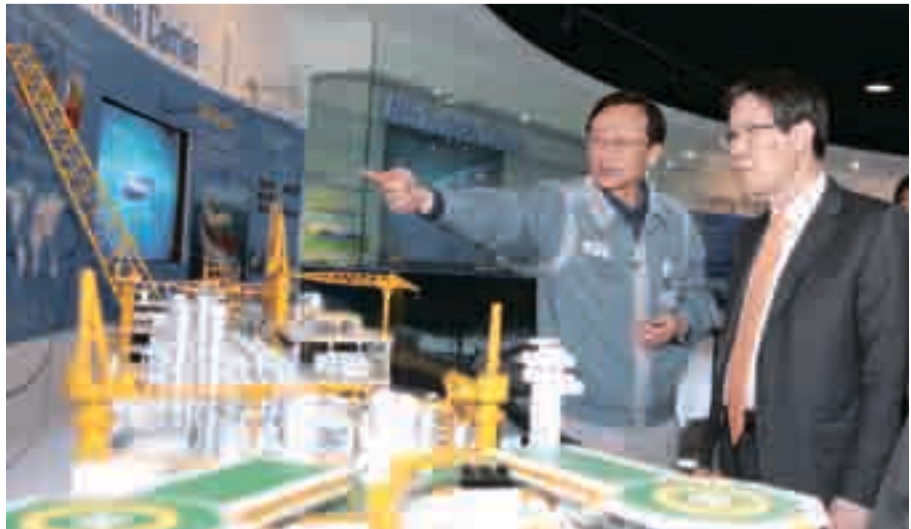
또한 ‘기술 기반 솔루션 마케팅’을 강조하며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를 직접 찾아가다. 기술 솔루션 마케팅이란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과 마케팅 활동을 통합한 것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권 회장은 철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품질개선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權門人

지난 6월4일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은 권문인(權門人)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권영진(51, 새, 동정공과 34세, 대구시장) ▲권선택(58, 민, 추밀공과, 36세, 대전시장) ▲권영세(61, 새, 북야공과 34세, 안동시장) ▲권민호(58, 새, 북야공과 37세, 거제시장) ▲권명호(53, 새, 좌운공과, 38세, 울산동구청장) ▲권영택(51, 새, 부정공과 34세, 영양군수) ▲권철우(50, 새, 부산서구①) 부

- 산시의원) ▲권오성(53, 새, 부산동래구②, 부산시의원) ▲권혁열(51, 새, 강릉시④, 강원도의원) ▲권석주(66, 새, 영월군 ②, 강원도의원) ▲권욱(47, 민, 목포시②, 전남도의원) ▲권기익(54, 새, 안동시④, 안동시의원) ▲권기탁(51, 새, 안동양, 안동시의원) ▲권광택(46, 새, 안동④, 안동시의원) ▲권남희(43, 새, 안동④, 안동시의원) ▲권미경(41, 민, 비례대표의원) ▲권애영(49, 새, 비례대표의원) (편)



△권오준 포스코회장이 삼성중공업 본관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으로부터 LNG운반선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약력
1972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학사
1985 University of Pittsburgh, USA, Ph.D
1986.8 포항종합제철(株) 기술연구소 입사(연구원)
1995 - 2009 포항공과대학 철강대학원(겸직교수)
2011.2-2014.3 (주)포스코 (CTO/부사장/사장)
2011.5 - 현재 worldsteel TECO(위원장)
2012.1 -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 CTO클럽(대표)
2014.3 - 현재 (주)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1996.1 IR 52 장영실상
1997.6 영국금속학회 Charles Hatchett Award
1999.10 미국자동차학회 최우수 논문상
2008.5 동탑산업훈장

자료제공 : 포스코홍보실 이상춘부장
감수 : 권오용 효성그룹상임고문 권범준 홍보부장